



## 민주 경선...광주 이어 전남서도 '물같이 바람' 불까

### 총선 D-33

이재호 단수공천 담양·함평·영광·장성외 9곳 10일부터 본격화  
10-12일 목포시,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  
11-13일 여수갑·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전략선거구 순천·광양·곡성·구례를 15-16일 서동용 vs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선거구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10일부터 본격화한다. 이재호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와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외에 나머지 8개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의 2·3인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에서 표출된 '물같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면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12일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목포에서는 김원이(조선) 국회의원과 배재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김승남(재선) 국회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보 변호사와 김문수 민

당 대표 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어 11-13일엔 여수갑과 여수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여수갑의 경우 주철현(조선) 국회의원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리턴매치에 나서며, 여수을에서는 김희재(조선) 국회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윤재갑(조선) 국회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맞대결을 벌인다.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재선) 국회의원과 손금주 전 국회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재선) 국회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간 3인 경선이 각각 치러진다. 3인 경선 대상인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선거구는 결선투표까지 도입돼 예측 불허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16-17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가동되는 5·18민주광장 분수 새봄을 맞아 새로운 음악과 분수 노출의 동기화를 위해 7일 시험가동에 들어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분수가 시원스럽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지난해 '빛의 분수' 콘텐츠 이후 새롭게 조성된 분수대는 이달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김재정기자

당초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던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권 전 비서관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여 서동용(조선) 국회의원과 2인 경선으로 변경됐다. 경선 일정은 15-16일 이틀 간이다. 앞서 광주지역 6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패배하

는 이번이 연속됐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인준을 보류하고 있지만 5개 선거구의 경선 통과자는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북구을 전진숙 예비후보, 광산갑 박근택 예비후보다. 이처럼 물같이 불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전남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선택을 지켜볼 일"이라며 "여러 시·군이 결합된 선거구가 많아 각 지역 별 표심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재정기자

### 광산갑 박근택 1위

'비명' 박광온·노영민·윤영찬 고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선거구 경선에서 박근택 변호사가 현역인 이용빈 국회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경선 지역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민주당의 '뒷발'으로 불리는 광주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정치신인에 패한 선거구가 동남갑, 동남을, 북구갑, 북구을에 이어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발표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 수도권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진명(진이재명)계 도전자들한테 대거 패배했다. 경기 수원정에서 직전 원내대표인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위원회장에, 서울 은평에서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 각각 패했다. 경기 성남중원의 현역 윤영찬 의원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남양주을의 현역 김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에게 패해 공천장을 내렸다. 서울 광진갑에서 비명계 현역인 전혜숙 의원이 이정현 전 JTBC 앵커에게 고배를 들었다. 친문(친문재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저본선행에 실패했다. 다만 신영대 의원이 '진명'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을 눌렀다. 서울 용산에선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었다. 최기상 의원(금천), 오기형 의원(도봉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경기용인병), 최민희 전 의원(경기 남양주갑)도 공천을 받았다. 용인병이 지역구인 현역 정춘숙 의원은 부전대변인에 패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하위 10%'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 중앙공원 1지구 이달 협약 체결...사업 속도

광주시, 전문가 검증 진행 "한양측 공개토론회 재요청 수용 불가"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특수목적법인(SPO)과 이르면 이달말에 검증을 거쳐 협약을 체결키로 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하순께 협

약을 위한 전문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33㎡(평당) 분양가를 2천45만 원으로 제시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분석 내용을

최종 검증한 뒤, 기존 후보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경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전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공개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한양은 선분양가 1천900만 원에 대한 주장을 증명하지 않았고 자료 공개도 부실했다"며 "토론회 본질과

관계없는 법적 지분율 변경에 대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마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선·후분양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참여 기업들 간 공개 관련 의견 조율이 끝남에 따라 8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대한 주장을 증명하지 않았고 자료 공개도 부실했다"며 "토론회 본질과

또한 한양 측이 이날 오전 이달 말 공개토론회를 재진행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광주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빛고를 SPC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된 용역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안을 공개 비판하며 1천900만 원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한(주한양의) 산출 근거 내용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며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며 고의적 사업 방해를 일삼는 주체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양을 비판했다. /박성강기자

**Today**

- '카드발급'...스미싱 피해속출 6면
- '키즈라라' 현장학습 핫플로... 11면
- 프로야구 내일부터 시범경기 16면

내일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산림 100m 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방지 행동요령  
및 과태료 안내코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